

# 전남 최대 승부처... 송이 “득표율 40% 잡아라”

(대수) (용주)

## 4·13 총선 현장, 이곳이 뜨겁다

### <3> 여수 갑

4선 현역인 김성근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여수시갑은 모두 5명의 후보가 중앙선관위 등록을 마치고 경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정일, 더불어민주당 송대수, 국민의당 이용주, 무소속 김영규, 이광진 후보가 각각 표밭을 누비고 있다.

3일 현재 지역정치권에서는 이곳의 선거구도를 양강 내지 3강 구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민주 송 후보와 국민의당 이 후보 간 양강구도라는 주장이 있고 여기에 김영규 후보까지 포함한 3강 구도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양강이든 3강이든 지방에서 정치활동을 해온 ‘풀뿌리 정치인’ 대 부장급 출신의 ‘중앙 인물’ 간 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위원을 지낸 송 후보는 “현재의 선거구도는 양강에 한 명의 후보가 뒤따르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얼마 전까지는 이 후보와 접전을 벌였지만 최근 들어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기를 잡은 이유로 송 후보 측은 국민의당의 공천 후유증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경쟁후보들의 반발이 계속됐고 김영규 후보가 탈당, 무소속 출마를 강행함으로써 전열이 흐트러졌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더민주는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모두 승복하고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 후보 측도 더민주 송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했고 김영규 후보가 뒤따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양강 후보가 초반 접전을 하고 있다”며 “공천 후유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극복한 상태고, 이 후보의 ‘큰 인물론’이 유권자 사이에 확산하면서 대체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문재인” 정서가 보다 강해지는 분위기에서 지역민들이 국민의당을 선호하고 있어 무난한 승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웃 지역구인 여수시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같은 당 주승용 후보의 존재도 이 후보 측에겐 큰 힘이 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의장을 지낸 무소속 김 후보는 “3강 구도를 형성한 상태”라며 “(양강구도로 나온) 일부 여론조사 결과와 바다 민심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당은 비민주적 공천으로 여수시민을 배신했다”며 “공천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여수시민이 묵인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 한 번도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무소속
이름	신정일	송대수	이용주	김영규	이광진
나이	50	60	47	59	50
역력	·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여수지회장 ·현 여수예과 대표	·현 더민주 여수갑 수석부위원장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현 법무법인 태원 대표 변호사 ·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검사	·전 여수시의회 의장 ·전 여수시의회 4선의원	·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집행위원
주요 공약	·돌산대교 생동기 다리 건설 ·돌산 진두마을 중부도로 개설	·여수국가산단 지방세율 확대 추진 ·여수랜드마크 '여수타워' 건립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법 제정 ·국립다도해섬박물관 건립	·지역수산업 부흥 여수협의회 발족 ·국가산단 환경부담 지방세 입법화	·국회의원 세비 50% 장학금 기부 ·여수산단 국제 10% 지방세 환원

## ‘풀뿌리 정치인’ 對 ‘검사출신 인물’ 대결 구도 더민주-국민의당 2파전에 무소속 김영규 추격 지지세력 동문·종친 등 다양 ... 송-김 단일화 변수

여수를 떠나지 않고 지켜온 ‘토박이 후보’라는 점이 여수 시민 사이에 퍼지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치과의사인 새누리당 신정일 후보 측은 “여수 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현재 10% 중반대의 여론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최종적으로 20%대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소속 이광진 후보는 “1994년 29세 민주당 서부부장으로 시작한 22년간의 정당 및 시민운동가 생활 동안 3번의 공직선거 낙선 등 굵직한 정춘을 여수사람을 위한 활동가 길에 밟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후보들은 당선연속 득표율을 40%대로 보고 있다. 송 후보 측은 “현재 구도가 끝까지 가면 40%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권”이라고, 이 후보 측은 “당선 안권권은 득표율 40% 정도로 생각하고, 투표율 55% 정도를 예상했을 때 2만6000여표를 얻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 측은 “3강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최소 35%만 득표해도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후보들의 지지세력은 다양하다. 송 후보에게 가장 힘이 되는 지지층은 더민주 공조적이다. 송 후보 측은 “현재 여수시에서 더민주 소속인 전남도위원은 없지만 바다 조직을 유지해온 여수시의원 9명이 더민주 소속이어서 당 세력만으로는 국민의당을 압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여수시에서 3명의 전남도위원이 국민의당이어서 조직적으로 밀리지 않고 있으며 일반 민심은 이미 더민주를 떠나 국민의당에 와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송 후보 측은 중장년층 송씨 일가 모임인 ‘여수회’와 카톨릭계의 도움, 이 후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여수에서 나와 동문의 힘 그리고 김 후보는 김해김씨 종친들과 화양면 출신들의 지원을 각각 기대하고 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 후보가 여수와 출신인 반면 김 후보는 여수공고 출신이어서 이들 동문들간 지원 경쟁이다. 지역정치에서는 여수와 출신은 오피니언리더들이 많고 여수공고 출신은 산업단지 내에 다수 분포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세력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더민주 송 후보와 무소속 김 후보의 단일화가 승부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는 “완주”를 공언하고 있으나 지역정치에서는 3강 구도에서 김 후보가 뒤처질 경우 송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 후보와 김 후보는 68여초회(1968년 여수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 회원으로 친구처럼 지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1995년 여수시의회에 같이 들어간 뒤 송 후보는 전남도위원으로 방향을 바꿨고, 김 후보는 여수시의회에 남아 4선을 하고 의장까지 지내 정치적 동지관계를 형성해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 4·13 총선 현장

### 송기석 ‘대학교수 정책자문단’ 본격 활동

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3일 지역정책과 공약을 검토, 보완하는 전문가 그룹인 ‘대학교수 정책자문단’을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 실행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자문단 위원장에는 최환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원장과 류재한 전남대 교수, 김현우 조선대 교수, 김덕모 호남대 교수, 김재남 광주여대 교수 등 30여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 DJ 3남 김홍결, 이형석 지원유세 나서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결 더민주 광주선대위원장이 4일 이형석 광주 북구를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유세에 나서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체를 이루고 광주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인 더민주와 이형석 후보가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다.

### 신안·영암 등서 박준영 후보 지지 선언 잇따라

신안군의회 무소속 최승환 의원(압해·자은·암태면)과 문상옥 전 신안교육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 100여 명이 3일 탈당을 선언하고 국민의당 박준영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했다. 이어 “정책당, 대안정당, 수권능력을 키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민의당에 입당해 국민과 국가, 민족을 위해 뛰고 있는 박준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양향자 중앙공원 국가·생태공원화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공원 국가·생태공원화’를 위한 3대 방안으로, ▲국가공원화법 개정 등을 통한 국가예산지원 확보 ▲시민펀드 등 시민사회 합의모델 창출 ▲권역별 동시매입 전략 등을 내놓았다.



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도시공원 법정기준 1인당 6㎡를 충족하기 위해선 130만3969㎡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2020년에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강운태 ‘구속기간 추가 연장’ 유감

옥중 출마를 한 무소속 강운태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후보는 3일 변호사를 통해 “산악회와 관련해 지난 4개월간의 수사와 2차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를 충분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 3일전 돌연 구속되고 공식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된 시점에서 구속기간이 10일 추가 연장된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 확보를 크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앞서 법무부장관에게 선거운동기간 구속 일시정지나 TV토론과 방송연설을 통한 최소한의 선거운동이라도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쟁점 및 공약

여수시갑은 전남도선관위가 전남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꼽은 지역이다. 현역의원 불출마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후보자들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는 등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 벌어져 왔다. 이 때문에 선거 후 법적 조치가 뒤따르면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앞으로 정책선거를 다짐하고 있지만 구전홍보팀 등을 이용한 네거티브 공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혼탁양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은 여수의 원도심이자 여수박람회와 열린 곳이다. 따라서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박람회시설 사후활용

### 원도심 활성화·박람회시설 사후활용 핫 이슈로

방안이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따라서 후보들은 대부분 관광지원과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구체적인 여수엑스포 시설 사후 활용 방안을 저마다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공약 외에 독특한 공약으로 더민주 송대수 후보는 국민발안제를 통해 여수국가산단 지방세율 확대 추진과 여수랜드마크 ‘여수타워’ 건립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의 눈에 띄는 공약 중에는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법 제정과 국립다도해섬박물관 건립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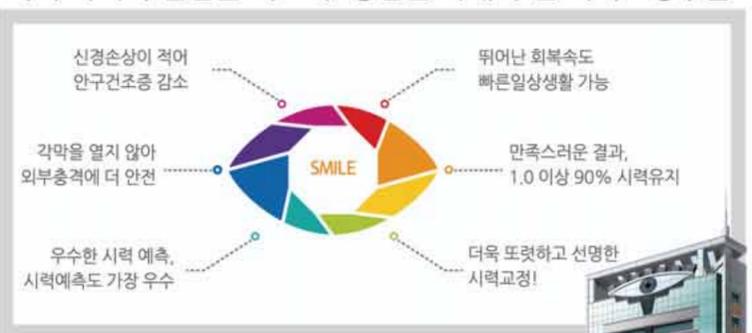
무소속 김영규 후보의 공약으로는 (가칭)지역수산업 부흥을 위한 여수시 협의회 발족과 국가산단 환경부담지방세 입법화 등이 독특하다. 새누리당 신정일 후보는 ▲돌산대교 쌍둥이다리 건설 ▲여수-거문도 간 여객선 한 척 더 투입 ▲돌산 진두마을 중부도로 개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소속 이광진 후보는 여수산단 국제 10% 지방으로 환원 추진과 당선 시 국회의원 세비 50%를 독거노인·불우청소년 장학금으로 기부 등을 공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 라식·라섹의 단점은 최소화! 장점은 극대화 한 시력교정수술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전라도·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백운광주안과

#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